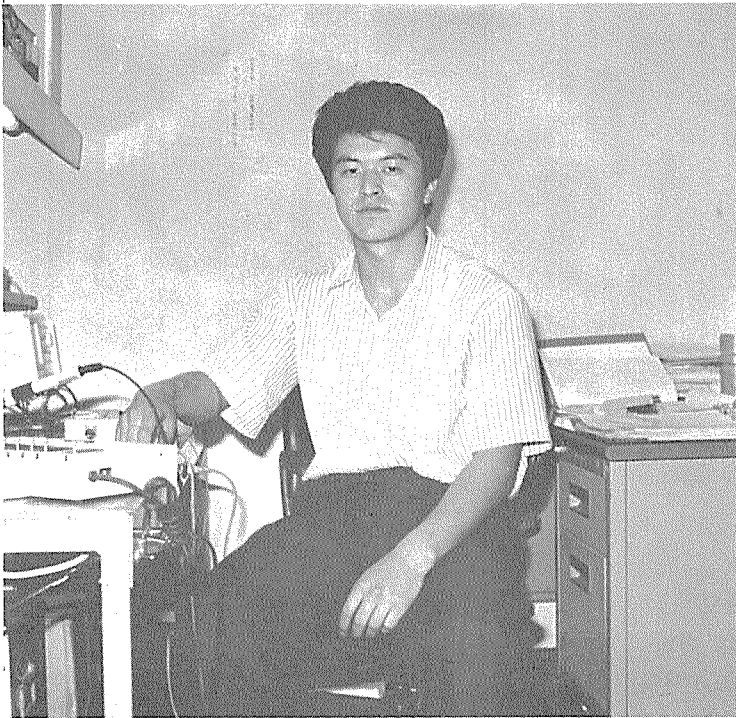


지금은 내 역할을 충실히 실천할 때..

김 영 상
세진전자(주) 개발실



24시간 경찰서와 연결되는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

사고발생시 원터치로 3분내
경찰이 현장 출동!

本誌는 가느다란 선 하나로
범죄나 도난 사실을 멀리 떨
어진 경찰서나 경비센터에 신
속히 알려 줄 수 있는 컴퓨터
를 이용한 전화회선 방범경비
System을 개발, 국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세진전
자(주) 개발실 김영상씨를 만

나 보았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실습생
으로 세진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발군의 기량을 발휘 '89년
도 졸업과 동시에 입사해서
개발실에 근무하게 됐다. 김
영상씨는 “처음 입사해서는
기존제품을 개조해 보는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기초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좋았다”고 한다.
주요 부품들의 확실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

〈김영상씨 프로필〉

나의 고향: 전북 정읍

가족관계: 부모님, 2남 2녀 중
장남

생활신조: 성실, 정직

취미·특기: 수영

배우자 조건: 속이 찬 여자

감명 깊게 본 영화: 나의 왼
발

별명: 곰

비밀: 졸릴때 콧 구멍을

동료에게 한마디: 소신껏 일
하자

업이 저에게는 중요하기 때문
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부천시 삼정공
단에 위치하고 있는 동사를
방문했을때 만나는 사람들에
게서 밝은 표정을 읽을 수 있
었는데 “우리는 비록 작은 업
체이지만 분위기도 가족적이
고 상·하간 선·후배간의 질
서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질
서 얘기가 딱딱한 표현일 수
도 있겠지만, 이러한 질서속
에서 상호 신뢰하는 마음이
웁니다”고 자기들의 화기에애
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원

만한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회사라는 조직은 혼자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잘 대변해준다.

함께 일하고 있는 개발실에는 이사님이하 7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다들 윗분들이면서 자상하게 잘 도와 주시고 있다고. 특히 개발실안에는 기술서적도 많이 있어 외국의 선진기술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김영상씨는 바쁜일과 중에도 야간에는 인천공업전문대에 다니며 공부에도 열심인 학구파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점에 대해 “항상 실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보면 회사는 자연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며 회사에서 큰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최근에는 “CPU를 통한 알람프린터를(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했는데 단독으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종합적인 System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한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두번 밤을 세워본 사람이 많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Project에 들어 갔을때는 여러날들을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집중적

으로 몰두 할 때, 일에 보람을 느끼곤 한다며 전자25시 주인공 다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한다.

일을 하면서도 “저는 어느 위치, 어디에 있을지라도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며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임을 또한 알게 된다.

“개발실에는 김훈기 차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배우는 것이 인간적으로든 업무적인 일이든 많이 배우고 있다”며 지칠줄 모르는 그분의 「끈기 근성」이 자신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한다.

평소 생활하면서 얻는 교훈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 “공부도 꾸준히 해야된다는 것”이며 아직은 어린나이지만 “내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고.

어릴적부터 수영을 좋아 했는데 고향인 전북 정읍에 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저수지 주위를 누가 빨리 완주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5명이 내기를 했는데 여기서 1등을 한 경험이 있듯이 취미로 수영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한다. 이때 한 친구가 힘에 겨워 영원히 잠수할 뻔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급한 상황에서 인공호흡하던 장면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최근에는 “나의 왼발”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크리티

브라운이 주인공, 그는 태어날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부자연스러운 아이였는데 끈질긴 삶에 대한 애착과 주위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눈물겨운 삶의 내용이었다고.

결국 그는 왼발을 사용하여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게 되어 파란많은 인생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그의 투지를 통해 자신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앞으로 제조업체를 경영해보고 싶은 것이 소망인데 “제조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어느나라 누구나 마찬가지로 양질의 제품생산을 통한 국민생활의 향상과 첨단기술의 축적·개발에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말할 정도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고 있음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었다.

친한 동료에게는 무엇이든지 “소신껏 일하자”는 말로 서로를 조언도 하며 게으름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고.

이제 한여름이면 줄음이 많이 올텐데 “콧구멍을 후비는 버릇이 남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지금까지 전자25시의 주인공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 주었듯이 김영상씨도 전자25시의 시간들을 통해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길 손모아 기대해 본다.